

2014 언론중재위원회 국제컨퍼런스 현장스케치



박성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중국,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몽골, 러시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벨기에,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한국.

한국의 언론중재위원회가 주최한 2014 국제컨퍼런스는 아시아와 미주, 유럽과 아프리카를 망라한 15개국 참가자가 언어와 인종, 국가체제의 차이를 넘어 ‘언론의 자유’라는 공통어로 소통하며 표현의 자유와 책임을 일깨운 뜻깊은 행사였다. 지난 11월 12~13일 서울 플라자호텔과 프레스 센터에서 ‘디지털 미디어시대의 언론자유: 새로운 지평(The New Era of Freedom of the Press)’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각국 언론평의회 관계자와 언론인 1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갔다. 가깝고 먼 나라에서, 때로는 지구 반 바퀴를 돌아 한국에 온 참가자들에게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의 언론중재제도는 물론 창덕궁, 삼성전자, 판문점과 제3땅굴



국제컨퍼런스 참석자들 기념사진

방문과 같은 문화탐방 행사를 통해 한국을 배울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도 했다.

이번 행사의 의미는 우선 세계에서 유일하게 언론중재제도를 가진 한국이 국제회의 중심에서 우리 제도를 세계에 알리고, 언론평의회나 옴부즈맨 등 다양한 언론 관련 분쟁해결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 사이의 대화를 주재했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국가의 경험을 통해 새삼 인간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소중함을 깨닫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기술의 발달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공감했다는 점이다. 언론, 자유, 책임, 기술은 이번 행사를 지탱하며 각기 다른 나라들의 동질감을 일깨워준 키워드였다.



① 환영사를 하고 있는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
② 자국의 전통 기념품을 전달한 인도네시아 참가자와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

행사는 컨퍼런스 전날인 11일 오후 6시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에서의 환영 리셉션으로 시작되었다. 대부분 서로 처음 대면한 참가자들은 서로 명함을 주고받으며 인사를 했고, 각테일과 서울의 야경을 즐기며 어색함을 친근함으로 바꾸어 나갔다. 심영진 운영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리셉션 행사에는 박용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플립 보예즈 벨기에 언론평의회 전 사무총장과 쉬 징 중국 베이징대 신문방송학과 부교수의 축사가 이어졌고, 한국 측에서도 김두현 전 언론중재위원장의 축하 말씀에 이어 다소 늦게 도착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념사를 해 대회의 무게를 더했다.

리셉션에 참석한 외국의 참가자는 잘 만들어진 언론중재위원회의 영문 홍보 동영상을 통해 위원회의 연혁과 성과를 알기 쉽게 접할 수 있었다. 한국 측 참가자 역시 동영상을 보며 언론중재위원회의 국제적인 위상을 실감하는 듯했다. 달리아 도너 이스라엘 언론 평의회 의장의 건배 제의로 시작된 만찬에서 한 테이블에 앉게 된 세션별 참가자들은 양식 코스 만찬을 하며 다음날 열릴 컨퍼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밖의 다른 참가자는 테이블을 오가며 서로 인사를 통해 친목을

다졌다. 눈길을 끈 것은 모두 전통의상을 입고 리셉션 만찬에 온 6명의 인도네시아 언론평의회 참가자였다. 이들은 리셉션장에서 박용상 위원장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는 순서를 즉석에서 마련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본격적인 컨퍼런스 첫날인 12일 오전 10시,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에 일찍부터 모인 참가자들이 발표장을 메웠고, 취재진들도 북적거렸다. 박용상 위원장의 공식 개회사에 이어 바로 시작된 제1세션의 주제는 ‘언론보도의 가이드라인, 누구를 위한 것인가?’였다. 사회를 맡은 박홍수 강원정보문화원 원장(전 연세대 교수)은 최근 기술의 변화를 언급하며 언론을 규율하는 제도 역시 시대에 맞추어 변화해야 하는 당위성으로 세션을 시작했다.

제1세션의 첫 발표는 중국 인민망 저우위보 한국지사장의 ‘중국 재난보도의 현황 연구’였다. 국제컨퍼런스인 만큼 영어로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저우위보 지사장은 “영어보다 한국어를 더 잘한다”며 유창한 한국어로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발표를 마치자 사회자는 “나도 강원도 사투리를 가끔 쓰는데 한국어 표준말을 구사하시는 발표자께 배워야겠다”며 깊은 인상을 표현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일본의 카타오카 토모유키 변호사는 ‘언론의 피의사실 보도 행태 -일본과 한국의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는데, 그 역시 한국어로 발표해 인상적이었다.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 통역된 발표문은 세계 각국의 참가자에게 영어로 전달되었다.

세 번째 발표자는 오스트리아 언론평의회 이사인 알렉산더 와질렉으로, 화려한 파워포인트와 함께 ‘자살보도 윤리에 대한 오스트리아의 관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참석자의 열띤 질문 공세가 이어졌는데, 이를 통해 재난보도, 피의사실 보도, 자살보도 등이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 언론도 고민 중인 현안임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의 재난보도에서 중국 언론 전반의 문제점, 피의자 보도에서 피해자 보호 보도에 이르기까지 논의의 범위를 확대해가며 다양한 의견이 교환된 후 정오를 훌쩍 넘겨 제1세션이 마무리되었다.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뷔페식으로 마련된 오찬에 이어 오후 2시 30분부터 제2주제의 세미나로 이어졌다. 컨퍼런스 두 번째 주제는 ‘세계의 언론피해구제제도와 ADR 솔루션’. 이 세션은 세계 각국의 언론분쟁 조정제도를 비교하고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둔 순서로, 인도네시아, 에스토니아, 한국의 사례가 발표되었다. 제2세션의 사회를 맡은 필자는 “세계에서 유일한 한국의 언론중재제도와 함께 언론평의회 제도나 옴부즈맨 제도를 현장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연사들에게서 듣고 비교하며 학습할 소중한 기회”라고 의미를 소개했다.

제2세션 첫 번째 순서는 인도네시아 언론평의회 사무총장인 크리스티아나 첼시아 쉐 사무총장의 ‘인도네시아 언론평의회의 변화’였다. 이 발표에서 쉐 사무총장은 인도네시아 언론평의회의 설립에



- ① 제1세션 사회를 맡은 박홍수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 ② 제1세션 발제를 맡은 저우위보 중국 인민망 한국지사장, 알렉산더 와질렉 오스트리아 언론평의회 이사, 카타오카 토모유키 일본 변호사(왼쪽부터)
- ③ 제2세션 사회를 맡은 필자
- ④ 제2세션 발제를 맡은 크리스티아나 첼시아 쉐 인도네시아 언론평의회 사무총장, 타르무 타메르크 에스토니아 공영방송 옴부즈맨, 정준영 특허법원 부장판사(왼쪽부터)
- ⑤ 제3세션 제1발제자 염규호 미국 오레곤대 석좌교수, 사회자 안착희 중앙일보 글로벌협력팀장, 제2발제자 발라즈 웨이어 헝가리 편집자협회장(왼쪽부터)

서 변화에 이르는 과정을 인도네시아 사회 정치적 발전과 함께 설명해 주었다. 참석자들은 언론평의회의 구성과 역할, 재원조달 등에 대해 질문을 했고, 쉐 사무총장은 성심껏 답해주었다.

두 번째 발표는 에스토니아 공영방송 미디어 옴부즈맨인 타르무 타메르크의 ‘언론피해구제제도에서의 옴부즈맨의 역할, 언론평의회와 옴부즈맨 간의 협력 방안’이었다. 에스토니아의 유일한 옴부즈맨인 타메르크 씨는 에스토니아 방송국에서 옴부즈맨과 언론평의회가 상호 협조하며 언론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상황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타메르크 씨에게도 역시 옴부즈맨에 대한 궁금증을 묻는 질문들이 이어졌다. 전직 언론인 출신인 타메르크 씨는 발표 이후에도 한국 언론 상황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며 한국에 옴부즈맨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질문했다.

제2세션 마지막 순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을 지낸 특허법원 정준영 부장판사의 ‘한국의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한 발표였다. 한국의 언론중재위원회를 궁금해 할 많은 외국의 참가자에게 언론중재위원회가 하는 일을 체계적이고 소상하게 발표해 이해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발표였다. 정준

영 부장판사는 언론조정을 일종의 ‘법원연계조정’으로 설명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언론중재위원회가 하는 다양한 노력에 관해 설명해주었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언론중재위원회를 이해하기 위해 언론자유에 대한 질문이나 인터넷상의 분쟁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던져 궁금증을 해소했다.

본격적인 컨퍼런스 두 번째 날이자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인터넷 미디어 환경에서의 새로운 이슈들’을 주제로 제3세션이 열렸다. 어쩌면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언론자유’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컨퍼런스 대주제와 가장 걸맞은 주제인 이번 세션은 중앙일보 글로벌법률팀의 안착히 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언론법의 권위자로 꼽히는 미국 오레곤대 염규호 석좌교수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상의 ‘잊혀질 권리’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의 최근 경향과 미국의 경우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조명한 관심을 끌었다. 염규호 석좌교수의 발표는 특히 유럽 참가자들의 관심과 토론을 유도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PCBih 의장인 다리오 노바릭, 오스트리아 언론평의회 알렉산더 와질렉 이사, 벨기에 언론평의회 플립 보예츠 전 사무총장의 열띤 질문 공세를 받았다. 에스토니아 공영방송 미디어 옴부즈맨인 타르무 타메르크, 남아프리카공화국 언론불만처리위원회 브라이언 마케케타 부위원장 등도 언론이 직면한 새로운 현안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제기, 인터넷상의 언론자유와 인격권 보호와 함께 잊혀질 권리가 새롭게 부각된 이슈임을 실감하게 했다.

세 번째 세션 마지막 발표자는 헝가리 편집인협회 발라즈 웨이어 회장으로, 디지털 기술로 인해 가능해진 실시간 보도의 문제점 등에 초점을 두어 ‘신속성과 정확성, 둘 중 무엇을 외면할 수 있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저널리스트로서 ‘일회성 저널리즘’의 발달에 주목하며, 속도의 압박에서 언론보도의 정확성을 지키기 위한 과거의 기준을 더 이상 준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 세션을 마무리하며 염규호 석좌교수는 이날 세션과 전체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준 언론중재위원회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안착과 신장된 언론의 자유를 언급해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상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 주었다. 이날 오찬을 마지막으로 컨퍼런스 공식행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창덕궁 방문과 수원 삼성전자를 둘러보는 한국 문화탐방 길에 올랐다.

컨퍼런스 마지막 일정인 14일, 일부 참가자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소 아쉬운 가운데 남은 참가자들은 한반도 분단 현장인 DMZ와 제3땅굴을 둘러보는 한국 방문일정을 이어갔다. 오전 9시 호텔에서 출발하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도착한 참가자들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잘생긴 병장의 안내로 분단의 역사와 경위, 그 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 등을 영상을 통해 보고 설명을 들은 후 버스를 타고 도끼 만행사건 현장과 돌아오지 않는 다리 등을 둘러보았다. 임진각에서

현지에서 난 장단콩으로 만든 전골과 숯불돼지 구이로 점심을 먹은 후 제3땅굴로 이동, 서틀을 타고 땅굴 안으로 내려가 실제 땅굴 안을 살펴 보며 한반도의 긴장상황과 함께 분단의 아픔을 느껴보았다. 관람 후 제3땅굴 앞 조형물 앞에서 단체 기념사진을 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며 제3땅굴 앞에서 찍은 단체사진

이날 모든 행사에 동반한 염규호 석좌교수의 부인은 “한국에 여러 번 와봤지만 이번 행사가 가장 즐겁고 기억에 남는 일이 많았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각국 행사 참가자들 역시 컨퍼런스 일정이 뒤로 갈수록 서로 가까워지고 많은 대화를 나누며, “한국을 배우고 느낄 좋은 기회였다”고 즐거워했다.

이번 컨퍼런스가 무사히 잘 치러졌을 뿐 아니라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언론중재위원회 직원들의 노력과 협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창립 33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행사를 주최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번 행사가 첫 국제행사라는 점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차분하고 체계적이며 프로페셔널 하게 일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컨퍼런스 공식 홈페이지를 열어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고, 공식 엠블렘을 제작해 이미지의 통일성을 기했으며, 영문 동영상을 제작해 효과적으로 중재위원회를 홍보했다. 메모지 제작과 펜을 준비하는 작은 일까지 세심하게 챙겨 참가자들은 편하고 환영받는 분위기에서 자신들이 준비해온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문화탐방 행사에 동반 참석한 위원회 직원들이 뛰어난 외국어 실력을 발휘하며 참가자들을 인솔했고, 이동하는 버스 안에 참가국의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틀어주는 배려를 했다. 이 모든 과정을 국제행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대행시키지 않고 중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은 위원회가 이미 국제적인 위상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참가국의 면면을 훑어보면 국경 없는 기자회견이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 국가 순위’에서 언론 자유도가 최상위에 속하는 국가와 비교적 언론이 자유로운 국가, 언론이 자유롭지 않은 국가가 고루 섞여 있었다. 이들이 역사와 문화적 차이를 넘어 ‘언론의 자유’라는 핵심 언어를 중심으로 행사기간 내내 공동의 관심사를 이야기했고, 한국의 언론중재위원회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기록해 둘 만한 일이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기술 수준과 함께 스마트폰 보급률,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국가이다. 그런 점에서 디지털 시대의 언론의 역할과 자유, 책임에 대해 한국이 해야 할 역할이 많다. 아직은 계획에 없었지만, 언론중재위원회가 두 번째로 주최할 국제컨퍼런스가 벌써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